

반대생활 못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사람이 죽는 원인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왜 죽느냐 하는 걸 알았어요. 밑실에 들어가서 연단 받을 때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까닭은 바로 나라의 주체의식, 즉 욕심이 중심된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피가 점점 마귀 피로 변해서 썩어서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면 피는 썩록 썩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밑실 안에서 연단 받을 때에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반대생활을 해야 안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안 죽는 연습을 하려니까 반대생활을 했던 겁니다. 눈만 뜨면 나를 시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나는 속으로 율화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율화통이 터지는 그 마음도 나라는 주체의식인 자존심이 그러는 거지, 양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양심은 바로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실천에 옮긴다는 건 이걸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그게 미친놈이 아니면 그럴 수는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만 있으면 골탕을 먹이고, 일을 많이 시키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상대자가 있었습니까. 그 상대자가 거짓말로 해와 이긴 자에게 보고하면 해와 이긴자가 왜 그러느냐 하며 나를 나무랐던 겁니다.

아무리 나를 나무라도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하는 걸로 일관했지 이유를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한 일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일도 없습니다.”하고 이제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말속에도 어린한테 아이들 말대꾸하면 야단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것이 없대손 치더라도 웃어른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면 이제그대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웃어른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되고 웃어른에 대한 도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다 긍정적으로 이 사람이 인정을 하니깐 으레 그렇게 해도 된다는 습관이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몇 년을 두고 이 사람을 포함모략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몇 년을 두고 포함모략을 받아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나가니까 하늘의 사람이 인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뒷걸음질도 반대생활의 일종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반대생활을 해야 마귀를 죽이고, 반대생활을 해야 사람의 피가 바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생활을 해야 피가 바뀌진다는 그 체험을 빨리 얻으려면 방 안에서나 운동장에서나 뒷걸음질 해보세요. 한 달 정도만 뒷걸음질만 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뒷걸음질만 한다는 건 반대생활의 일종입니다. 어떤 의사가 허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뒷걸음질하면 낫는다고 이 말을 했습니까. 의사가 허리가 아프고 이제 관절염이 아픈 것을 낫는다고 이렇게 국한해서 얘기했지만 피가 변한다는 건 몰랐던 겁니다. 피가 변한니까 그런 관절염도 낫고 허리 아픈 것도 낫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세주 조희성님

그러니까 반대생활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피가 바뀌고 인간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는고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반대생활입니다. 마음의 반대생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바로 피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만 찾아서 하는 이러한 반대생활을 하면 바로 피가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피로 바뀌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세주만 아는 첨단학설

이것은 첨단과학의 학설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도 모르는 이런 첨단과학을 구세주는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전지전능자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또 못할 것 없이 다 하는 것이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십 삼사 년간 태풍도 막고 공산주의도 없애고 여름장마도 못 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고 또

남북한 전쟁도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슨 요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마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실력.

이 사람이 반대생활을 일관해서 승리자가 되었으니 반대생활에는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이 지구 땅위에 있을까? 없죠? 반대생활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사람의 피가 점점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미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 하면 피가 바뀌는 겁니다. 피가 바뀌어서 몸 안에 있는 병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그런 걸 느껴야지 그걸 체험으로 못 느끼면 우리 제단 나오나 마나예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느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좋아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걸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실천이 안 돼요.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엔가 미운 사람은 눈이 흘려지고 자연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 미워하게 되어 있고, 이쁜 사람, 이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희생생활 또한 반대생활

그러나 반대생활하면 미워해야 될 그러한 마음의 흐름이 이제그대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질 때에는 거기 흐르는 물이 맑은 물이 흐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려면 반대생활을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욕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체의식이 바로 욕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희생적인 영이 되려면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생겨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하나님에게 그 돈을 바쳐야 희생적인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좋은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아주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좋은 생활이라고 말할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돈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불쌍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반납을 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을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것을 이제 얻어 먹고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항상 주는 생활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는 생활만 하지 언제 누구의 것을 얻어 먹는 그런 생활을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러한 반대생활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할 수 없는 것을 이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피로 바뀌고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2003년 1월 29일 말씀 중에서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수혈과 헌혈의 영적 의미

우리는 착한 마음 바른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단순히 좋은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세계를 화합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진정 사랑이라는 마음의 힘(따뜻)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가

“사랑의 마음”은 식물의 타고난 형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식물로 탄생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실을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 차원임을 인식하고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야 하겠다.

또 일본의 『생명의 실상』에 기록된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해 보겠다.

- 에토씨가 병아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둑고양이가 노리고 있다가 결박하면 잡아먹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반쪽 에토씨는 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리하여 “형제인 고양이여, 형제인 병아리를 잡아먹지 말라”고 종이에 써서 닭장에 붙여 놓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고양이가 병아리를 노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며칠 뒤에 근처의 철길에서 치어 죽은 그 고양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장을 개량한 루터 버뱅크의 예는 세상 모든 만물, 특히 생물에게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물질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진정 사랑이라는 마음의 힘(따뜻)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가

“사랑의 마음”은 식물의 타고난 형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식물로 탄생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실을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 차원임을 인식하고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야 하겠다.

또 일본의 『생명의 실상』에 기록된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해 보겠다.

- 에토씨가 병아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둑고양이가 노리고 있다가 결박하면 잡아먹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반쪽 에토씨는 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리하여 “형제인 고양이여, 형제인 병아리를 잡아먹지 말라”고 종이에 써서 닭장에 붙여 놓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고양이가 병아리를 노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며칠 뒤에 근처의 철길에서 치어 죽은 그 고양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 사랑(희생)



식물과 대화 가능하다는 일본의 하지도 부인이 자신이 개발한 기계로 식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막에 3년 간 대화를 하고 있다고 나온다 (사진 아래 참조)

이것은 설마 그 도둑고양이가 써 붙인 글을 보고 이제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구나 하고 비관한 끝에 자살해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병아리와 사이는 에토씨의 사랑 염파(念波)로 조화됐으나, 고양이 자신이 부조화의 염(念)이 구상화되어 그 고양이는 치어 죽고 만 것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사는 마즈자카 씨 집에서도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 병아리를 자꾸 고양이가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즈자카씨는 에토씨처럼 써 붙이지는 않았지만 “고양이와 병아리는 조화하고 있다. 결코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집중해서 염(念)한 것이

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는 고양이가 병아리를 건드리지 않게 된 것이었다. -

이와 같은 얘기를 오늘날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 했다면 무슨 ‘귀신 쫓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은 위와 같은 일들이 막연한 추측이 아닌, 충분히 과학의 영역에서도 입증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대성 이론, 심신 상관의학, 양자물리학, 끈이론이다.

이처럼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넉넉하게 세상에 미치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썩어질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답이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내뿜어지는 선한 파장이 선한 울림이 되어 만물과 우주가 함께 공명하게 되면, 구약 이사가 선지자가 본 미래세에 일어난 일이 예언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찌꺼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몇 번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사야 11:6-8).”

이것은 사랑의 위대한 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과학이지 공상이 아니다. 생각을 선하게 갖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즉시 선한 긍정의 파장이 온누리에 퍼져 만사행통의 파장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주인격인 인간의 의지에 따라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다. 옛말에 주인이 착하면 그 집 개도 착하다고 했고, 농사도 잘 된다고 하

였다. 또 나라가 어지럽고 민심이 흉흉하면 소나무가 말라 죽는다고 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세상은 즉시 변화되는 것이다. 아무리 소수의 정치인이 뛰어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고양되고 변화되어 선한 행동이 일상이 된다면 천국 극락을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격언은 괜한 말이 아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우주관과 인간관이 함축된 철학적 사상이 깃들여 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 신이 역사한다면 바로 인간을 통하여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우주의 변화와 창조는 바로 인간이며, 그 중에서도 ‘사랑(희생)’이 으뜸이라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먼 데서 찾지 말자.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부활시키면, 이 세상의 악과 죄가 영원히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지상천국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